

인연을 알면 ‘나’를 볼 수 있다



암도 스님

(백양사 청량원 주석)



암도 스님은 복을 짓고 받고 누리는 법은 바로 팔정도(八正道)를 지키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6월 21일 대전 지장사에서 열린 중장불사 성공 발원 백고좌법회에 법문하기 위해 백양사에서 새벽길을 재촉해 온 암도(巖度) 스님.

스님은 기자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맙다” 신도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며 자신을 낮췄다.

불자들의 귀에 쫄쫄 들어오는 설법으로 유명했던 스님은 5년 전 출연히 백양사 청량원에 참거왔다. 다시 선원문을 나선 스님의 설법은 언제들어 도 즐겁다.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날의 주제도 ‘복짓고 행복하게 사는법’이었다.

신수병행(信受奉行)하면 무량대복(無量대福)이 있느니라. 나무어미타불

불법승 삼보를 믿고 받들어 행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우선 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조건 가운데 인연이 좋아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초년에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복이 있다고,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복, 중년에 처를 잘 만나면 처복,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복 있다 합

니다. 또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식복이 많다 하고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 돈이 자꾸 생기면 돈복이 많고 재복이 있다 합니다. 인연(因緣)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태어나서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인연 놀음입니다. 전생의 업력을 따라서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인연은 인(因)과 연(緣)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기 업이고, 연은 환경의 조건 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연 따라 근기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인연이 좋아야 하지만 본인이 근기가 훌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연이 있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인연 놀음

가족은 물론 친구·이웃

내 몸과 같다는 것 깨달아야

요즘 세상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화염의 세계,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시대입니다. 이무애(理無礙) 사사무애(事無礙) 이사사무애(理事無礙)를 다 뛰어넘은 굉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아요. 그러나 복만 가지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아는 자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친척 이웃이 내 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좋은 인연 지어서 좋은 복을 받으려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짓고 받고 누리느냐. 개인은 우선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 깨달음의 길과 같은 건데 우선 정견(正見)을 가져야 합니다. 바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8>



병석(病席)의 위로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 평생 교단에 공양을 올리며 수행자 못지않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던 급고독 장자가 무거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애야, 어서 사리불 존자에게 가서 내가 무거운 병을 알아 지금 위독하다고 말씀드려라. 존자님을 뵈고 싶어도 찾아갈 힘이 없으니 제발 기없게 여기셔서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청하여라.”

이 말을 전해들은 사리불 존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급고독 장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자는 병문안을 온 사리불을 보자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려 하였으나, 하지만 사리불은 그를 눕혀서 앉혀놓았다.

“일어나지 마세요. 장자여, 저기 옆에 다른 평상이 있으니 나는 거기에 앉으면 됩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음식을 드실 수는 있습니까? 많이 괴롭습니까?”

사리불의 따뜻한 음성엔 급고독 장자는 금세

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사리불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중아함경)

병문안이 끝났으니 사리불 존자는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장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급고독 장자가 자신이 언제 부처님을 처음 뵈게 되었으며, 어떤 인연으로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부처님과 승단에 정사를 기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자의 이야기들은 사리불 존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하고 바쁘신 사리불 존자를 앉혀 놓고 뻥하이는 이야기를 다시 되뇌는 급고독 장자에게는 그 시간만큼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을 향해 품었던 장자의 그 순결한 환희심은 어쩌면 세월의 더께에 눌리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초라하게 위축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들면 아무런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어도 깊은 회한에 사무치게 되며, 선한 마음으로 지내왔던 평생의 세월이 한 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사리불 존자 방문으로 병마 이긴 급고독 장자처럼 병든 노인들에게 따뜻한 법문 해주는 스님 많아야

어린아이라도 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아프며, 이리다가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급고독 장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사리불은 말하였습니다.

“장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착한 일 하나 한 것 없이는 어리석은 범부라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겠지만 장자께서는 부처님과 승단을 향한 고결한 믿음을 지니셨으니 그 믿음의 힘으로 고통이 사라지고 자극한 즐거움만 생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어리석은 범부라면 약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여 죽은 뒤에 지옥에 날 것이지만 장자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니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범부라면 지독하게 인식하고 욕심이 많았기에 죽은 뒤에 지옥에 날 것이 걱정되었지만 장자께서는 언제나 은혜롭게 배웠고 선한 지혜를 지녔으니 이로 인하여 고통은 사라지고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자의 첫 번째 자리인 수다원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사리불의 다양한 위로를 들은 장자는 몸과 마음이 기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병석에

사리불 존자는 가장 먼저 환자의 착한 일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그를 힘내게 하였습니다. 위축되었던 환자는 힘을 얻었고, 자신이 지내오면서 가장 가치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그 깊고 긴 뉘우리를 들어준 것만으로 사리불 존자는 그에게 저절로 삶에 대한 기운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평생 절에 다닌 노보살님들이 계신데 절에 찾아가도 스님들의 따뜻한 시선 한번 받기 힘들다고 낮은 소리로 푸념합니다. 그러다 병에 걸려 자리보전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절과의 인연은 끝난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세월 길러온 자신의 신앙에 깊은 회한을 품고서 불교에 등을 돌리는 경우까지 종종 생깁니다.

사리불 존자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찾아와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 참 잘 살았다’며 견네는 위로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노(老) 신자들’. 그들은 치매불교의 장본인이 아니라 이 땅에 불교를 살아있게 해 준 급고독 장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성이 소중했다면 이제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 이미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신면 함목리 406-28
www.sungjongsas.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kg

른 생활을 해야 해요. 바른 생활이란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해요. 바른 견해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고 입으로 먹어보고 등등 안이비설 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 전체가 작용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일수사건(一水四見)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한 가지인데 업에 따라 증상이 달리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물을 볼 때 음료수 아니면 농수로 봅니다. 귀신들은 물이 불로 보이고, 신들은 유리로 보인답니다. 과학자는 H₂O라고 수소 산소가 2대1로 모이면 물이라고 해요. 물고기에게 물은 그저 집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의식 못하듯이 물고기는 물을 의식 못해요.

이렇게 견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업견(業見)이란 견해에 따라 견해가 달라집니다. 장님이 꼬끼리 만지듯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소견이 좁아집니다.

팔정도(八正道)는 개인완성이고 바르게 잘사는 행복한 길입니다. 아주 쉽죠? 정업과 정견을 하면 정념이라,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된, 정성껏 밀어붙이면 수도도 생활도 성공해요. 특하나 수도하는 사람은 팔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正定)입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진하다보면 선정삼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진하면 니르바나라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요.

팔정도만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봉사라 할 수 있는데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남도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자비심을 갖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시를 해야 해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사, 재물로 도와주는 재사, 놀라지 않게 하는 무위사가 바로 보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무위사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안심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시 다음에 지계(持戒)라고 하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면 자신이 건강해져요. 삼삼하지 말라만 안해야 해요. 삼삼 안하면 건강해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아픈 차례를 많이 해요. 병만 나는 게 아니라 단명해요. 상대를 많이 단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과업으로 금생에 와서 단명하는 겁니다. 인연법이 그래요.

복을 지어놓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무량대복은 금방 안 생겨요. 큰 복은 잘 참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참는 것이 인유(人憂)입니다. 보살행 중에서도 잘 참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나 참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진(正進)이라

이 중요하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노력 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성공의 아버지는 정진입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고 정성껏 해야 합니다. 이게 복 받는 법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도피하게 돼서 복 지을 기회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슬픔입니다. 욕바리답 가운데 최고가 지혜로서 피안으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은 정신 통일을 해서 선정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신 통일되어 살고 있어요. 삼매 아닌 사람이 없는데 강도와 순도의 문제예요. 독서하다 정신통일되면 독서삼매라 하고 절도 하다 들어가면 절도삼매, 일하다

우리 마음은 본래 우주심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

본래부터 믿어야 깨침의길 열려

들어가면 사사삼매, 화두 들고 들어가면 간화삼매, 염불 하다 들어가면 염불삼매, 기도 하다 들어가면 기도삼매 삼매 아닌 것이 없어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마음이, 정신이 통일되어 정신 질서가 생겨야 합니다. 모든 질서는 정신 질서부터입니다. 정신 통일을 하면 정신·행동·사회·국가 질서가 확립됩니다. 정신 질서가 없으면 행동도 사회도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가 우주심이에요. 그것도 대우주와 같이 넓고 크고 깨끗합니다. 정신통일을 해서 수다림(誦陀) 사다함(衛陀) 아나함(阿那含)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해 부처님같이 대아라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수도를 잘하면 수다림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에 올라가요.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지성이 개발되면 미신도 불신도 없어집니다. 사다함은 일심으로 정신 통일해 의지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수도를 열심히 하면 아나함에 올라가요. 이런 현인이에요. 현인이 되면 율곡 선생 정도 되는 겁니다.

더 수행을 많이 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성인이라, 부처님은 대아라한 대성인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차원이 높아지면 해탈을 해요. 인간으로서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중생계를 떠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신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암도 스님.

라한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이 되려면 의식구조를 바꿔야 해요.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깨침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중생의 의식구조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수도해도 중생계를 떠날 수 없어요.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백날 가봐도 중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보고 중생이라고 안하고 불자라고 하잖아요. 정신은 의식구조에 따라 나와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의식구조인데 밑거름이 땀물 들어가면 땀이 나오고 국수물에 들어가면 국수가 나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생각 생각이 모두 다 의식구조에서 나와요.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의식 구조예요. 사고는 생각인데 방식이 의식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조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노예근성이 생겨요. 주인의식은 책임의식과 동시에 보시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몸을 통령(統領)로 취급할 수 있지만 정신문화를 창조하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적당히 먹고 입고 재우고 움직이면서 중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론만 중도가 아니라 생활도 중도여야 합니다.

열심히 정신수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예요.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절을 잘하세요. 절을 많이 하시고 염불도 좀 하시고 참선도 시간나면 하시고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창운 스님

옛날 스님들은 절제 철이 되면 선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해제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의 산천 경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행(萬行)을 했다. 그래서 이런 스님들을 보통 운수남자(雲水禿子)라고 부른다. 하늘의 구름과 계곡의 물처럼 발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 다닌다는 뜻에서 부르는 말이다.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애착이 생기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운수남자하면 창운(昶雲) 스님이 떠오른다. 정말 바람 같고 흐르는 강물 같은 스님이다. 스님은 비행기와 관련된 항공대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 늦게 출가했다. 늦게 출가한 만큼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생각이 더욱 철저했던 것 같다. 그때



그림·문병성

서 출가하지마자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두타행(頭陀行)을 실행에 옮겼다. 스님은 손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텐트도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손수레에 간단한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전국을 누볐다. 절에 들러 기도도 하고, 풀밭과 나무 밑에 앉아 참선도 했으며, 시간이 나면 시장에 가서 세상 구경도 하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손수레 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만행을 하는 도중 첫 번째 겨울이 왔는데, 밤에는 무척 추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끝에 손수레 바닥에 석유 군모를 설치했다. 쓸 때는 끌어내고 스위치만 넣으면 안으로 속 들어가는 그런 시스팀이다.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고, 난로 역할도 하는 일식이외의 발명이었다.

창운 스님은 일부러 저녁밥은 마음에 가서 탁발을 했다. 사만이라고 찾아내는 기독교도도 있었고,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느냐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쩌다가 불심이 깊은 재가불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따뜻한 밥도 주고 의복과 돈도 주었다. 그러나 스님은 오직 밥만 받고 돈은 절대로 받지 않았다. 스님의 탁발은 수행을 위한 것이며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탁발은 자기 마음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하는데 최고의 수행이라고 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탁발을 하는 것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는 그런 수행의 과정인 것이다.

하루는 스님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강원도의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휙 지나가는데가 싶더니 저만치 가서 멈추어 섰다. 그 차는 다시 후진해 와서 스님 옆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님의 피회한 옷차림과 손수레를 끄는 힘든 모습을 불쌍해 보였든지, 목욕하러만 서 몇 만원의 돈을 쥐어주고 갔다. 스님은 만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얼떨결에 받고 말았다고 한다.

스님은 손수레를 현암사 절 밑에 세워놓는데, 누가 자기도 그런 만행을 하려고 그랬는지 흠뻑가 버렸다. 스님은 손수레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는 기동력의 오토바이 시대를 열었다. 다른 스님들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기수행자 위의(威儀)

손수레 끌고 전국 돌며 탁발 겨울엔 강원도 움막서 생활

에 어긋나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는다. 그러나 창운 스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스님의 만행도 일 년 내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강원도에 토굴을 하나 구했다.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며 임시 거처만들어 놓은 움막이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 버리고, 스님은 그때부터 겨울내내 그 움막을 잠시 빌려 생활하는 것이다.

스님은 겨울이 되어 눈이 오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토굴에서 부처님의 원음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초기 경전들을 본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실히 살아있는 초기 경전을 보면서 수행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창운 스님은 일 년에 한번 오직 하얀거만 들어간다. 요새는 '물이 좋은' 선원에 방부를 들이기 위해 인구가 끝날 무렵부터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러나 창운 스님은 해제하고 나서 해동(解凍)할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만행을 하며 여름 안거를 살 선원을 물색한다. 들렀다가 이미 그 선원의 방부가 가득 찼으면 허룻밭 뚝고 나오고, 또 산천 경계를 천천히 구경하며 다른 선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터가 좋고 자리 하나쯤 비어 있으면 선원의 관계자를 찾아가 정식으로 방부를 들인다.

스님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선원에 들어가 참선 정진하고 있다. 세탑이 옥심에 가까워지니 흰머리와 흰 수염이 보이는 창운 스님의 두타행(頭陀行)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는 여전한 것 같다. ■형원 현암사 총무

30여년 6000회 설법...눈높이 인생강좌 유명

암도 스님은

지난 30년간 6000여회에 달하는 설법을 해온, 설법의 대가로 불리우는 스님이 바로 암도 스님이다. 허름 찌르는 유머와 맛깔스러운 말씀씨, 현실에

뿌리 내린 근거설법으로 버무려진 '암도식 인생강좌'로도 유명한 암도 스님은 1955년 17세의 나이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서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72년 서른

을 넘긴 나이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80년 백양사 주지, 1990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997년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평생 전국을 돌며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해온 암도 스님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백양사 청량원에서 선방 설법을 꾸린지 5년 남짓 됐다. 인연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원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성영만 천도하면 된다<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성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죄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Wellbeing Life

장해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항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항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